

VIP REPORT



■ ㄴ高-원低 활용 방안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유 병 규
편집위원 : 현석원, 임희정,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134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02-3669-40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엔高-원低 활용 방안

Executive Summary	i
1. 엔高-원低 현상의 심화	1
2. 엔高-원低 기회 활용 요인	3
1) 수출 증대 노력 강화	3
2) 對일본 시장 적극 진출	5
3) 관광수지 개선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6
4) 엔 자본의 對한국 직접 투자 유치	7
5) 대일 수입 부품소재산업 육성 방안 구체화	8
3. 엔高-원低 기회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방안	9
■ HRI 경제 지표	11

1. 엔高-원低 현상의 심화

엔高-원低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9년 연초대비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은 엔/달러 환율의 상승폭을 압도하고 있어 원/100엔 환율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달러대비 원화는 2월 23일 현재 연초대비 19.3% 절하된 반면, 엔화는 연초대비 3.0% 절하되는데 그쳐, 원/100엔 환율은 1604.6원에 달했다. 엔高-원低 현상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입업체와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국내 경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 엔高-원低 기회 활용 요인

엔高-원低 현상에 따르는 국내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엔高-원低로 인해 창출되는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첫째, 엔고로 대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마케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엔高-원低 현상은 전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일간의 경합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UN 자료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주력 수출 부문인 석유제품, 조선, 컴퓨터, 자동차는 각각 경합도가 2006년 0.883, 0.861, 0.707, 0.606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엔高-원低 현상은 한일 양국의 경합 부문에 투자를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2007년 1월 11.5%에서 2008년 12월 현재 -9.4%로 하락한 반면, 일본의 대미 수출은 2007년 1월 5.5%에서 2008년 12월 현재 -36.9%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대중 수출은 양국 모두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2008년 12월 11.5% 증가에 비해 일본은 -35.5%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둘째, 일본 소비자들의 저가 상품 수요 증대로 對일본 시장의 진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엔고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 제품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품질-저가 상품으로 인식되어 일본 인터넷 시장 및 부품소재 아웃소싱 시장 진출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 현지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에 익숙한 에이전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단기적인 마케팅 효과가 큰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입점을 위한 좋은 기회이다. 지난해 일본의 인터넷 통신판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1.7% 증가한 5조 3,400억 엔에 달하고, 경기 침체로 조금이라도 싸게 생활필수품을 사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도 우호적인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SBS프로덕션 등 41개사, 79개 제품이 2009년 1월 29일에 일본 인터넷 쇼핑몰 1위 업체인 라쿠텐(樂天, 점유율 30%)에 입점에 성공하였다.

셋째, 일본인들의 적극 유치를 통해 관광수지 개선에 따른 서비스수지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엔高-원低 현상으로 일본 관광객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4/4분기 월평균 19만 명에서 2008년 4/4분기 월평균 2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일본 방문객 수는 2007년 4/4분기 월평균 21만 명에서 2008년 4/4분기 월평균 13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또한 일본 관광객이 일회 방문에 그치지 않는 일본 관광객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다. 2008년 3분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관광객 중 여가/휴가 목적이 전체의 59.3%에 이르고, 동일인의 4회 이상 방문 비중 역시 32.3%로 가장 높다. 여행 계획시 최초 목적지를 한국으로 선정한 비율 역시 가장 높은 94.8%를 보였고, 이들의 한국에서의 활동 내역 1순위 역시 쇼핑(61.6%)으로 나타났다.

넷째, 엔 자본 가치가 증대하고 있어 이를 對한국 직접 투자 증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엔高-원低 현상에 따른 엔 자본 가치 증가로 對세계 직접 투자와 對한국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對세계 직접투자는 2007년 전년대비 46.5% 증가에서 2008년 전년대비 77.1%까지 증가하였다.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2005년~2007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08년 전년대비 82% 증가하여 23.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투자는 인도, 베트남과 더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높은 국가군에 속해 82%에 달한다.

다섯째, 엔고 현상에 따른 수입 비용 증대로 인한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원/100엔 환율이 2009년 1월 1,384.9원에서 2009년 2월 24일 1,583.5원으로 14.3% 상승함으로써 부품소재 수입에 필요한 비용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 수입한 금액은 443억 달러(4조 엔)에 달한다. 2009년 수입금액을 2008년 금액으로 가정하고 연중 14.3%의 환율 상승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으로 7.9조 원의 대일 부품 수입 증가액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엔高-원低 기회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엔화 강세 국면을 적극적 기회로 삼아 해외 수요의 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엔고에 따라 대미, 대중 수출 감소폭이 한국이 보다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엔고 시기에 기업들은 세계 점유율 확보를 위한 투자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합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브랜드 및 국가 브랜드 활용한 마케팅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대일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엔高-원低 현상을 통한 대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만성적인 대일 무역 적자 해소에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엔高-원低 현상의 최대 수혜 산업인 음식료품과 상대적으로 고품질-저가 제품의 일본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사전적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국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대책과 더불어 일본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관광 인프라의 확충하여 관광 산업의 기본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외국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넷째, 엔 자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 기술의 유입과 엔 자본의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의 IR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경제 특구 제도와 같은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부품소재 산업 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일본의 기술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한일 부품소재 산업 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일본의 기술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있어 민관 공동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의 자금지원과 해외 전문 기술 인력의 공급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 엔高-원低 활용 방안 >

엔高-원低 현상의 심화	
- 엔高-원低 심화	· 달러대비 원화는 2월 23일 현재 연초대비 19.3% 절하된 반면, 엔화는 연초대비 3.0% 절하되는데 그쳐, 원/100엔 환율은 1604.6원에 달함
- 엔高-원低 현상으로 수입 비용 및 대출 상환 부담 가중	· 특히, 원/100엔 환율 상승은 엔화 대출금의 상환 부담을 더욱 증대시킴
- 엔高-원低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엔高-원低로 인해 창출되는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엔高-원低 기회 활용 요인	
구 분	내 용
대일 수출 경쟁력 제고로 수출 증대	- 2008년 하반기 엔화강세에 따른 일본의 대미, 대중, 대EU의 수출 증가율이 대폭 감소한데 반해, 한국의 감소폭은 적음 - 특히, 대중국의 한국 및 일본의 2008년 12월 수출 증가율은 각각 11.5%, -35.5%로 나타남
對일본 시장 적극 진출	- 엔고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고품질-저가 제품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일본의 인터넷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됨 - 일본의 대표적 인터넷 쇼핑몰인 라쿠텐에 79 개 제품이 입점함
관광수지 개선	- 엔高-원低 현상으로 일본 관광객 수가 2008년 4분기 월평균 23만 명으로 급증하여 관광수지 개선 효과 기대됨 - 반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2007년 4분기 21만 명에서 2008년 4분기 13만 명으로 급감
엔 자본의 對한국 직접 투자 적극 유치	- 엔 자본 가치 증가로 對세계 해외직접투자가 2007년 전년 대비 46.5%에서 2008년 77.1%로 급증함 - 일본의 對아시아 직접투자 규모에 있어 對한국 투자는 2008년 전년대비 82% 상승함
부품소재 산업 육성 방안 구체화	- 엔고 현상에 따른 수입 비용 증대로 인해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 기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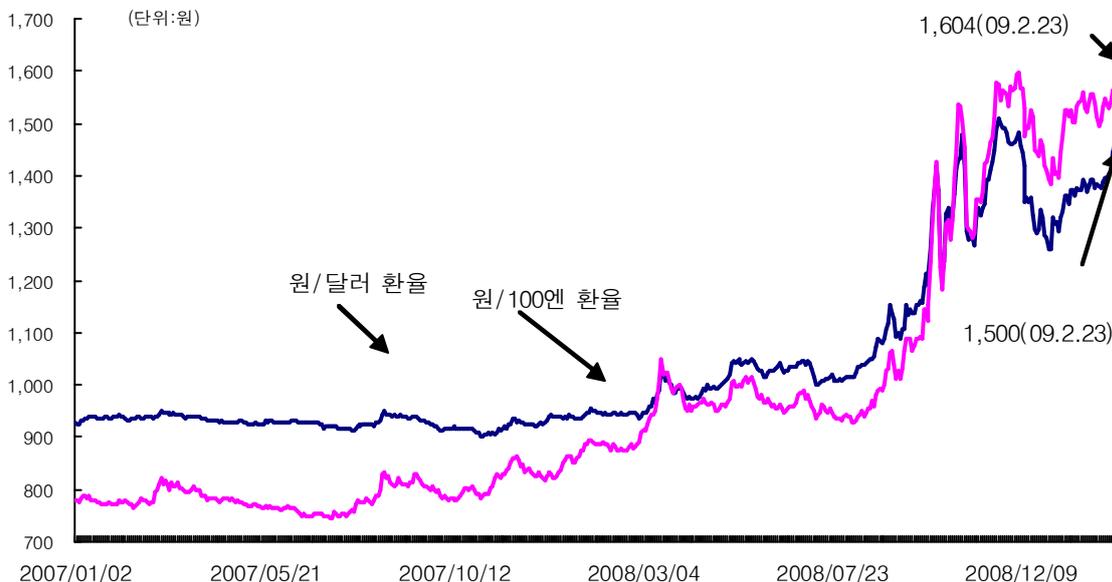
엔高-원低 기회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투자 증대	- 엔고 시기에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R&D 투자 강화가 필요
대일 수출 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	- 대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일 수출 마케팅의 적극적 지원
국내 관광 인프라 확충	- 국내 관광 인프라의 확충으로 관광 산업의 경쟁력 확보
엔 자본 투자 유치 환경 조성	-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 특구 제도를 재정비
부품 소재 산업 육성	- 부품 소재 산업 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

1. 엔高-원低 현상의 심화

○ (원화 가치의 급락) 2009년 2월 23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00원으로 지난 2008년 11월 24일 1,509원 이후 재차 원화 가치가 급락

- 달러 대비 원화 절하 : 2009년 연초대비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은 엔/달러 환율의 상승폭을 압도하고 있어 원/100엔 환율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함
 - 달러대비 원화는 2월 23일 현재 연초대비 19.3% 절하된 반면, 엔화는 연초대비 3.0% 절하되는데 그쳐, 원/100엔 환율은 1604.6원에 이름
 - 특히 엔/달러 환율은 2009년 10월 9일 99.64엔으로 90엔대에 진입한 이후, 2009년 엔/달러 평균 환율은 90.9엔으로 달러대비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 원저와 수출 증가 기대감 : 무역연구원의 설문조사¹⁾에 따르면, 엔高-원低 현상으로 802개의 기업 중 30.8%가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함

< 원/달러 환율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1) 김종민, '우리 기업의 금년도 수출전망', 무역연구원, 2009.2.

- 엔화 강세와 한국의 수출 증가 : 엔/달러 환율과 한국의 수출 간의 상관관계가 하락하지만, 한국의 對세계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특히, 대일본 수출은 1995년, 2008년 각각 27.0%, 8.0% 증가함

< 엔/달러 환율과 한국의 對주요국 수출 증가율 비교 >

(단위: %)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아시아	
	1995	2008	1995	2008	1995	2008	1995	2008	1995	2008
달러대비 엔화절상율	-7.9	-12.3	-7.9	-12.3	-7.9	-12.3	-7.9	-12.3	-7.9	-12.3
수출증가율	27.0	8.0	17.6	1.6	48.0	21.4	51.3	9.3	35.6	14.5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 (엔화 대출 상환 부담 가중) 수입업체와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엔高-원低 현상은 특히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엔화 대출 규모의 증가 : 엔화 대출 잔액은 2006년 1조 7,122억 엔, 2007년 1조 3,003억 엔, 2008년 1조 4,980억 엔 규모이며, 총 외화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말 30.2%에서 2008년 38.3%로 증가
 - 대출 상환 부담의 가중 : 원/100엔 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 대출금의 상환 부담이 증대
 - 원/100엔 환율 급등으로 인한 부담 : 2007년 말 원/100엔 환율은 789.75에서 2008년 말 1,076.63을 급등함으로써 2008년 말 엔화대출을 기준으로 할 때 추가적으로 4조 2974억 원의 상환부담액이 발생함

2. 엔高-원低 기회 활용 요인

1) 수출 증대 노력 강화

○ (對세계 수출 경쟁력 제고) 엔高-원低 현상은 전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일간의 경합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2008년 엔고 진행에 따라 한국보다 일본의 대 주요국 수출 감소폭이 큼
 - 2008년 12월 엔/달러 가치 상승률이 18.6%일 때, 대중 수출의 경우, 한국은 11.5% 증가인 반면, 일본은 -35.5%까지 감소하였으며 대미 수출의 경우에도 동기간 한국은 9.4% 감소에 그쳤으나 일본은 -36.9%로 큰 폭 감소

< 2008년 한국 및 일본의 對주요국 수출 증가율 비교 >

(단위: %)

		엔/달러	중국	미국	유럽
한국	1월	-10.3	13.5	0.6	29
	2월	-11.1	15.3	-9.3	25.1
	3월	-14.0	20.7	0.7	18.3
	4월	-13.7	23.8	10.2	30.5
	5월	-13.6	26.2	-3.1	11.7
	6월	-12.8	27.4	9.6	-8.4
	7월	-12.2	27.8	9.3	21.7
	8월	-6.4	26.7	1.0	6.4
	9월	-7.3	25.3	19.3	26.1
	10월	-13.4	21.9	5.0	3.4
	11월	-12.7	16.1	-14.3	-21.5
	12월	-18.6	11.5	-9.4	-30.5
일본	1월	-10.3	4.5	-3.3	-2.5
	2월	-11.1	14.8	-6	2.1
	3월	-14.0	3.1	-11.1	-3.1
	4월	-13.7	13.9	-9.1	8.3
	5월	-13.6	12.2	-9.5	-8.1
	6월	-12.8	4.9	-15.4	-2.3
	7월	-12.2	16.5	-11.5	-0.2
	8월	-6.4	8.8	-21.8	-8.4
	9월	-7.3	1.7	-11.2	1.9
	10월	-13.4	-1.0	-19.0	-8.1
	11월	-12.7	-24.5	-33.8	-
	12월	-18.6	-35.5	-36.9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편, 최근 한일 산업의 경합도가 주력 수출 부문에서 높아지고 있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한국과 일본의 주력 수출 부문인 석유제품, 조선, 컴퓨터, 자동차는 각각 경합도가 2006년 0.883, 0.861, 0.707, 0.606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자부품과 기타수송장비 부문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 경합도가 각각 0.199, 0.250으로 낮았으나, 2006년에는 급속도로 높아져 0.576, 0.532로 나타나 고위기술산업군에 있어서의 한일 산업의 경합이 더 높아짐

< 참고 > 한일 경쟁력 분석

- OECD 분류기준 ICT기술 분야인 컴퓨터, 전자부품에 있어 한국의 RCA 지수는 각각 8.43, 2.76으로 일본보다 높아 동 분야의 경쟁력 유지/확대 가능성이 높음
- 한일 양국의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양국 간에 산업 경합도가 0.549로 상당히 높은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비하여 세계 시장의 선점 기회가 높아짐

< 한일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 >

	한국			일본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석유제품	4.92(1.91)	3.66(1.35)	6.84(1.86)	0.70(0.10)	0.68(0.10)	1.79(0.25)
조선	16.78(6.51)	21.07(7.76)	30.93(8.43)	20.99(2.93)	18.67(2.82)	20.37(2.79)
컴퓨터	5.17(2.01)	4.95(1.82)	4.48(1.22)	9.41(1.31)	6.90(1.04)	6.38(0.88)
자동차	2.42(0.94)	3.21(1.18)	4.93(1.34)	14.36(2.00)	14.68(2.22)	16.65(2.28)
전자부품	6.01(2.33)	5.77(2.13)	10.12(2.76)	14.89(2.08)	13.81(2.09)	14.95(2.05)
기타수송장비	2.45(0.95)	1.05(0.39)	1.06(0.29)	2.91(0.41)	2.11(0.32)	3.96(0.54)

자료 : UN Comtrade, 2007년에 의거 작성함(이원복, '한일교역구조 변화와 제조업 수출경쟁력의 비교 및 시사점', 2007에서 재인용).

주 : ()안은 한일 산업별 RCA 지수임.

2) RCA 지수는 현시비교우위지수라고도 하는데,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국가별 시장 점유율이 경제 규모에 의해 국가간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반면 RCA 지수는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지수임.

2) 對일본 시장 적극 진출

○ (대일본 시장의 직접 진출) 엔高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의 고품질-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일본 인터넷 시장 및 부품소재 아웃소싱 시장 진출 가능성 증대

- 일본 인터넷 쇼핑물 진출 : 일본 현지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에 익숙한 에이전트³⁾를 통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단기적인 마케팅 효과가 큰 인터넷 쇼핑물 업체에 입점⁴⁾

· 진출 현황 : SBS프로덕션 등 41개사, 79개 제품이 2009년 1월 29일에 일본 인터넷 쇼핑물 1위 업체인 라쿠텐(樂天, 점유율 30%)에 입점

· 일본 통신판매 시장 : 지난해 일본의 인터넷 통신판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1.7% 증가한 5조3,400억 엔에 달하고, 경기 침체로 조금이라도 싸게 생활필수품을 사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도 우호적인 환경임

· 대일수출 전문상사 : 쇼핑물 진출과 함께 일본 수출을 처음 시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내 창업 한국기업과 연결된 '대일수출 전문상사'를 활용하여 손쉽고⁵⁾ 원활하게 수출하도록 유도

- 부품소재 아웃소싱 : 부품소재 분야 원천기술 확보, 대일 전략수출품목 발굴, 맞춤형 지원 등 정부 지원과 엔高 활용을 통해 일본 부품소재 아웃소싱 시장 진출 가능성 증대 유도

· 원천기술 확보 : 국내 부품소재 기업과 일본 수요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및 신뢰성 상생협력을 촉진. 2008년 신뢰성 상생협력사업에 국내 52개 부품소재 기업, 14개 신뢰성 지원기관, 일본 13개 수요기업 참여

· 맞춤형 지원 : 공급량 부족으로 대일적자가 발생하는 품목은 개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대일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선다변화⁵⁾를 지원

3) 현지 에이전트가 상품거래, 콜센터, 창고, 배송, 결제, A/S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중간유통 및 입점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음.

4) 지식경제부, 「대일역조 개선대책」, 200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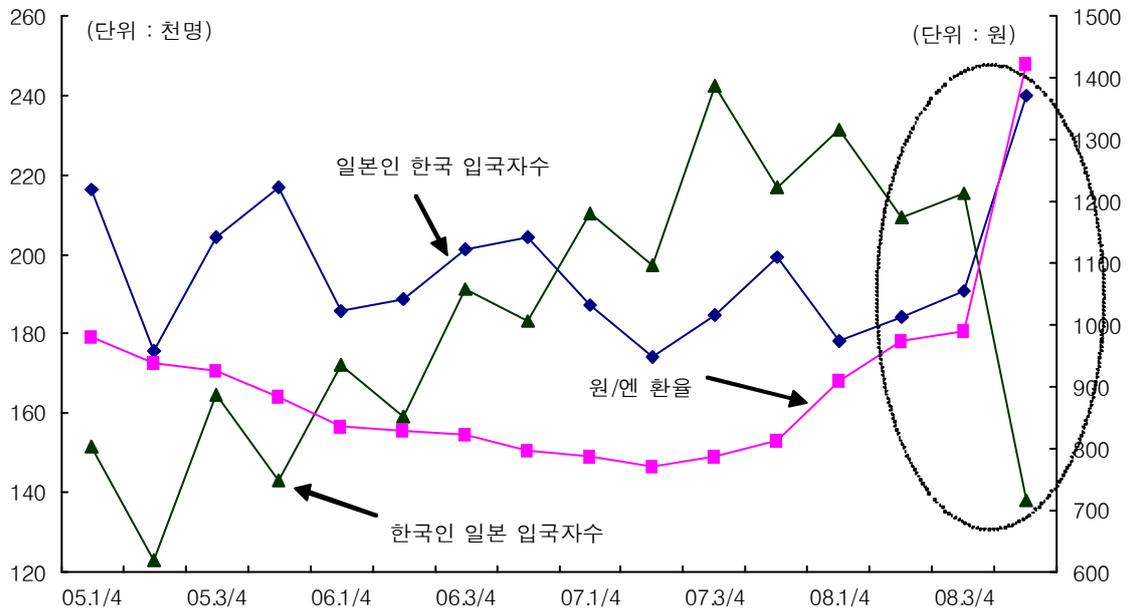
5) 수입선 전환정보 수집·제공, 민간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자재 수입선 다변화 유도.

3) 관광수지 개선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 (관광수지 개선)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일본 관광객의 급증은 관광수지 개선을 통한 무역외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남

- 일본 관광객의 급증 : 일본 관광객 수는 2007년 4/4분기 월평균 19만 명에서 2008년 4/4분기 월평균 23만 명으로 크게 증가⁶⁾
 - 반면, 한국인의 일본 방문객 수는 2007년 4/4분기 월평균 21만 명에서 2008년 4/4분기 월평균 13만 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 휴가/여가 방문이 빈번한 일본관광객 : 2008년 3분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⁷⁾에 따르면, 일본 관광객 중 여가/휴가 목적이 전체의 59.3%에 이르고, 동일인의 4회 이상 방문 비중 역시 32.3%로 가장 높음
 - 여행 계획시 최초 목적지를 한국으로 선정한 비율 역시 가장 높은 94.8%를 보였고, 이들의 한국에서의 활동 내역 1순위 역시 쇼핑(61.6%)으로 나타남

< 한국인 및 일본인 상호 방문객수 추이 >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은행.

- 6) 특히, 2008년 12월 일본 관광객 수는 전체 관광객 63.6만 명 중 25.7만 명(40.3%)을 차지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음
- 7)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08.

4) 엔 자본의 對한국 직접 투자 유치

○ (일본 자본의 對한국 투자 증가) 엔고 현상에 따른 투자 여력의 향상으로 엔 자본의 對한국 직접투자가 증가함

- 엔 자본의 對세계 직접 투자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전년대비 46.5% 증가에 그쳤으나, 급속한 엔고 현상이 일어난 2008년에는 전년대비 77.1%까지 증가함
- 엔 자본의 對한국 직접 투자 증가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08년 전년대비 82.0% 증가하여 23.7억달러에 이룸
 - 단, 일본의 전세계 직접투자에서 한국의 비중은 2005년 3.8%, 2006년 3.0%, 2007년 1.8%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일본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투자는 인도, 베트남과 더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높은 국가군에 속해 82%에 이룸

<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8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한국 ^{A)}	1,736	1,517	1,302	389	367	184	361	2,369	995	451	364	560
전세계 ^{B)}	45,461	50,165	73,483	18,174	23,941	11,101	20,267	130,142	29,306	17,941	21,022	61,872
A/B	3.8	3.0	1.8	-	-	-	-	1.8	-	-	-	-
증가율	-	△12.6	△14.2	-	-	-	-	82.0	-	-	-	-

자료 : JETRO.

주 : 2008년 4분기 및 2008년간 자료는 잠정치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 2008년 일본의 對아시아 직접투자액 규모 >

(단위 : 백만 달러, %)

	아시아	2008년							
		한국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투자 규모	23,311	2,369	6,497	1,078	2,020	730	591	1,075	5,552
비중	17.9	1.8	5.0	0.8	1.6	0.6	0.5	0.8	4.3
증가율	20.2	82.0	4.5	△21.5	△22.5	△29.1	81.7	126.2	268.6

자료 : J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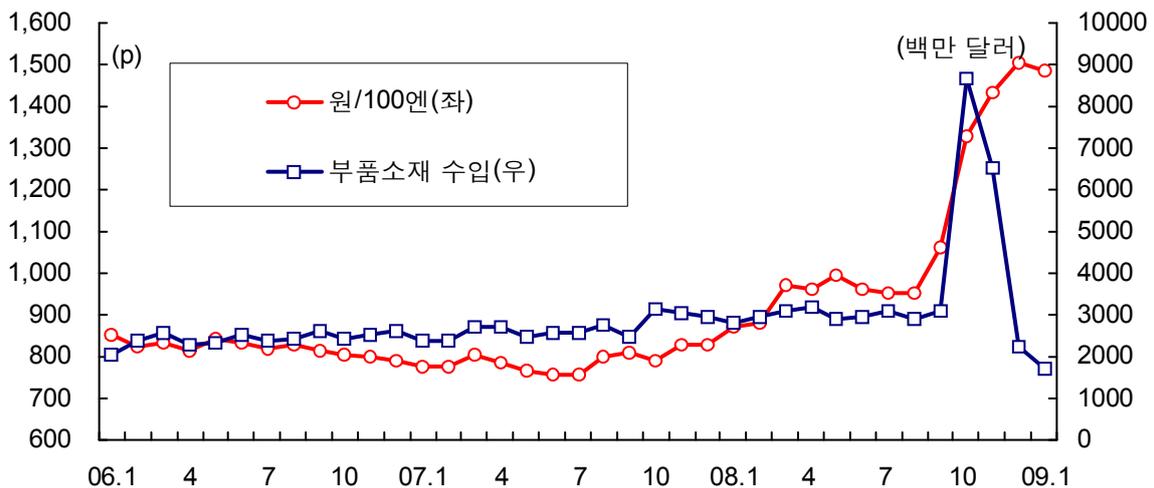
주 : 비중은 일본의 전세계 해외직접 투자액에 대한 비중임.

5) 대일 수입 부품소재산업⁸⁾ 육성 방안 구체화

○ (對일 부품소재산업 육성 기회) 엔고 현상에 따른 수입 비용 증대로 인한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 기회로 활용

- 부품소재 무역수입 상승 : 원/100엔 환율이 2009년 1월 1,384.9원에서 2009년 2월 24일 1,583.5원으로 14.3% 상승함으로써 부품소재 수입에 필요한 비용 증대
 - 2009년 수입금액을 2008년 금액으로 가정하고 연중 14.3%의 환율 상승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으로 7.9조 원의 대일 부품 수입 증가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부품소재 수입액은 2006년 291억 달러, 2007년 321억 달러, 2008년 443억 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부품 소재의 수입 대체 기회로 활용 : 대일 수입 중 부품소재 비중이 2007년 말 현재 57.2%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부담 증가가 가중되므로 부품 소재 육성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LCD용 유리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82%를 넘고, LCD 제조장비는 77%를 상회하고 있음

< 對일본 부품소재산업 수입 및 엔/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www.pmsd.or.kr).

8) 부품·소재산업은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표준산업 분류 15개 분야 제조업의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

3. 엔高-원低 기회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방안

○ 엔화 강세 국면을 적극적 기회로 삼아 해외 수요의 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 첫째, 세계 점유율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가 필요

- 엔고에 따라 대미, 대중 수출 감소폭이 한국이 보다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엔고 시기에 기업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R&D 투자 제고
- 특히 경합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브랜드 및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가 요구

- 둘째, 대일 수출 마케팅을 강화

- 엔高-원低 현상을 통한 대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만성적인 대일 무역 적자 해소에 단초를 마련
- 특히 엔高-원低 현상의 최대 수혜 산업인 음식료품과 상대적으로 고품질-저가 제품의 일본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사전적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셋째, 국내 관광 인프라를 확충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대책과 더불어 일본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 산업의 기본 경쟁력 확보에 노력
- 외국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출을 증대

- 넷째, 엔 자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

-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 기술의 유입과 엔 자본의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
- 특히,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의 IR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경제 특구 제도와 같은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
- 부품소재 산업 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일본의 기술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다섯째, 부품소재 산업 강화

- 정부는 한일 부품소재 산업 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일본의 기술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이명박 대통령은 1월 12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인 부품소재 산업분야에서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확대 노력을 공표
- 특히, 한국 산업 구조는 높은 수입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형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 엔高-원低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
- 부품소재 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있어 민관 공동의 펀드를 조성 하는 방안의 자금지원과 해외 전문 기술 인력의 공급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함 **HRI**

정유훈 선임 연구원 (3669-4014, youhun@hri.co.kr)

임희정 연구 위원 (3669-4031, limhj9@hri.co.kr)

현석원 연구 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	2008(E)				2009 수정전망	
			상반기	3/4분기	4/4분기	전체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5.0	5.3	3.8	-3.4	2.5	-2.2	
	최종소비지출 (%)	4.7	3.1	1.7	-2.4	1.3	-2.5	
	민간소비 (%)	4.5	2.9	1.1	-4.4	0.5	-2.8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1.4	-8.4	-1.9	-3.7	
	건설투자 (%)	1.2	-1.2	-1.3	-6.1	-2.7	1.8	
	설비투자 (%)	7.6	1.0	4.7	-14.0	-2.0	-11.5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60	-53.5	-85.8	75.2	-64.1	1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47	-68	-79	15	-133	66
		수출 (억 \$)	3,715	2140	1,152	931	4,223	3613
		증가율 (%)	(14.1)	(20.4)	(27.3)	(-9.9)	(13.6)	(-14.4)
		수입 (억 \$)	3,568	2208	1,231	915	4,353	3,547
		증가율 (%)	(15.3)	(29.7)	(43.0)	(-9.0)	(22.0)	(-18.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2.8	
	실업률 (%)	3.2	3.2				4.0	
	국제유가(Dubai, \$)	68	94.29				55	
원/\$ 환율 (평균, 원)		929.0	1,103.36				1,250	